

#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방안\*

## : 네트워크 및 활동가 중심으로

오 운 자(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교수)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떠한 사회이든지 휴먼서비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특히 통합적인 인간 육구의 충족을 위한 휴먼서비스의 특성상 상호 연관되어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관련된 최근의 현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문화 현상이나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국제적 관심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걸쳐 빠른 속도의 사회적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특히 결혼을 통한 이주가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성의 가치 수용이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험 내지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해야하는 이중적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주현상에 대한 세계적인 추이와 비교해 보면, 1980년대 말기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는 외국인의 이주 현상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단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가족의 생활환경상의 어려움 및 2세 교육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즉, 급격하고 압축적인 결혼 이주로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진행되므로써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수한 현상일 뿐 아니라 관심이나 정책적 경험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서구의 경험은 이러한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직·간접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 관련 담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상을 중심으로한 정책 수립의 노력과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급격히 진행된 측면이 강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은 초기적 단계의 온정적이고 자선적 경향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의 고착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 지원체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살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부관리 패러다임(이환범·이수창, 2008)은 IMF 이후 정부관리 패러다임을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다각적인 조직성과 제고 방안들을 강구해

\* 본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2008. 11. 5) 주제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오고 있는데, 기존의 투입 및 과정중심에서 성과 및 결과중심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표관리제 등의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성과 관리차원에서 사후적·통제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의 영향요인으로는 최고관리자의 의지 및 지원, 조직구성원의 수용성, 성과평가제도, 보상시스템, 예산관리, 조직문화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합리문화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에 편중됨으로서 성과평가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다른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환범·이수창, 2008)이나 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운영 결과는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초기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계적 과정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다문화가족지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달리, 다문화가족 지원이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체계의 관련된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지원 서비스 추진체계간 조정과 통합의 부재로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욕구를 확대 재생산시킬 수도 있으므로 수평적인 분산 조정과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역시 기관이나 서비스 추진체계간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 방법의 등장으로 유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한계를 완화하는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초기에는 외국인노동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근래들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관심이 옮겨졌으며 사회학, 인류학, 생활과학, 교육학, 여성학 등 학문적 영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다문화 관련 연구의 다른 구성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체감시키는 효율적 지원의 체계적인 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태도 및 정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여 만족의 체감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며 이러한 과정은 나아가서 결과를 반영한 정책수립의 순환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의 소통과 공존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준비를 지적할 수 있다. 인적자본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원천이 되며 지역사회에서 개발되어 온 자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요소인 지식, 기능 등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강일규 외, 2007). 또한 인적자본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전체의 시너지와 협동, 사회적 응집력을 목표(강일규 외, 2007)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역량이 강화된 전문활동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치를 내재한 협동적인 자산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관심이 개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sping-Andersen(2002;윤홍식, 2008;재인용)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과 보육서비스 등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해 저임금의 함정에 빠져 있는 듯 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적 정책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정책과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수행이 수평하게 진행되므로써 포괄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족지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에 대하여 네트워크 및 다문화활동가에 맞춰서 살펴보고자 한다. 파편화된 현안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을 포함하고 종합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형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네트워크 파트너십에 기반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기관간 협력망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첫째, 구축 방향 및 전체적인 차원의 구축 모델을 살펴보고 둘째, 지원내용 및 기관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셋째, 다문화활동가의 역할과 비전을 탐색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문화역량강화는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의 지위는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주변인적 위치에 주로 놓여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우선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 네트워크 이론, 조직문화론 접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의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는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 개념으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기본적 원리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정체성을 유지하여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념적 지향 역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결혼과정으로 형성된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 내지 가정을 의미한다.

## II.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모델

### 1. 다문화가족지원

#### 1)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역량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인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는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결혼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이며 이중 여성이 88.4%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족내 갈등 및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적 정착을 초기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고위험군 요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적응이 어려운 경우 가족해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과제 역시 부상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한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휴먼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여건이 예측되므로써 이들의 욕구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문화역량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역량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사회현상속에서 구체화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역량의 효시적 연구를 한 McClelland(1973)는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역량은 광범위한 심리적 사고와 행동적 특성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Boyatzis(1982)는 효과적이고 탁월한 업무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 즉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으로 역량을 정의한 바 있다(이동희, 2006;재인용). 이 두 경우는 개인 수준에서 역량을 이해한 것임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량은 문화적 역량으로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인식, 비교문화기술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김연희, 2007). 또한 강점 접근으로 문화마다 내재하는 강점이나

자원을 인정하며 소수 문화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개념이나 결핍모델로부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Lum, 2005). Cross 등(1989)은 서비스 전달체계나 기관 또는 실천가 개인이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된 행동이나, 태도, 정책을 문화적 역량으로 지적하였다(김연희, 2007;재인용). 나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6단계 구분하였으며 최고수준으로 문화적 숙달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서비스기관의 문화적역량 수준

수 준	특 성
문화적 파괴성 단계	소수민족 배제, 소수자들에 부정적인 실천 및 기관 정책
문화적 무능 단계	사회적 편견, 차별, 동정 등을 재강화하는 실천방식 사용 소수민족지원자 차별, 소수자에 대한 낮은 기대, 환영하지 않는 메시지
문화적 문맹 단계	차별 피하기 위한 문화·인종간 차이 무시 주류문화서비스 전략 모든 집단에 사용 문화적 동화 강조, 소수자의 문화적 강점과 고유성 무시
문화적 역량 전단계	협회의 문화적역량 이해, 소수(1-2명) 채용으로 조직의 문화적역량 달성 기대
기초 문화역량 단계	조직 전반에 문화적 역량 3요소(인식, 지식, 기술) 실천 편견없는 직원 채용, 지역주민의 자문과 제언 수용 기관의 문화적역량 수준 현실적 평가
문화적 숙달 단계	기초문화역량 수준 특성 및 다문화서비스 효과성 향상 위한 연구 다문화주의 옹호

출처 : Cross et al.(1989; 김연희,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 다문화역량은 다문화사회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민감성으로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의 가치와 규범이 되며 실천적인 지원체계의 추진기반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고자 한다.

## 2) 다문화가족지원의 주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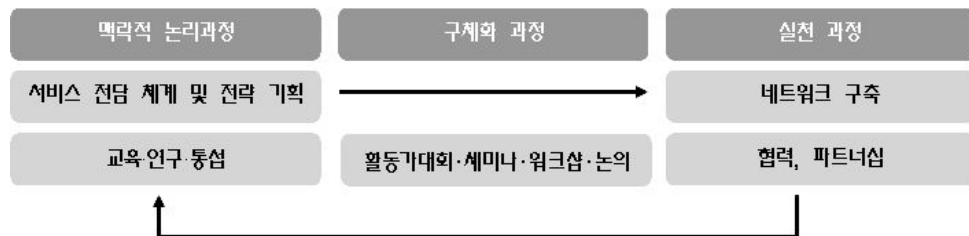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원 현황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시행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이 수립·추진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의 비전을 펼치면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의 4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은 가족 전체 대상의 포괄적 정책을 전개하며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체계적 관리로서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체계적 관리로서, 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과정의 정례적인 운영, 결혼이민예정자 대상의 현지 오리엔테이션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초기 사회적응 지원으로서, 수준별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한국어방문교육 강화,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다국어판 생활과 정책 정보매거진 확대가 해당된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넷째,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 강화로서, 결혼이민자 취·창업을 지원하고 자조모임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의 체계화로서, 다문화가족 DB 구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등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중점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 1)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의 배경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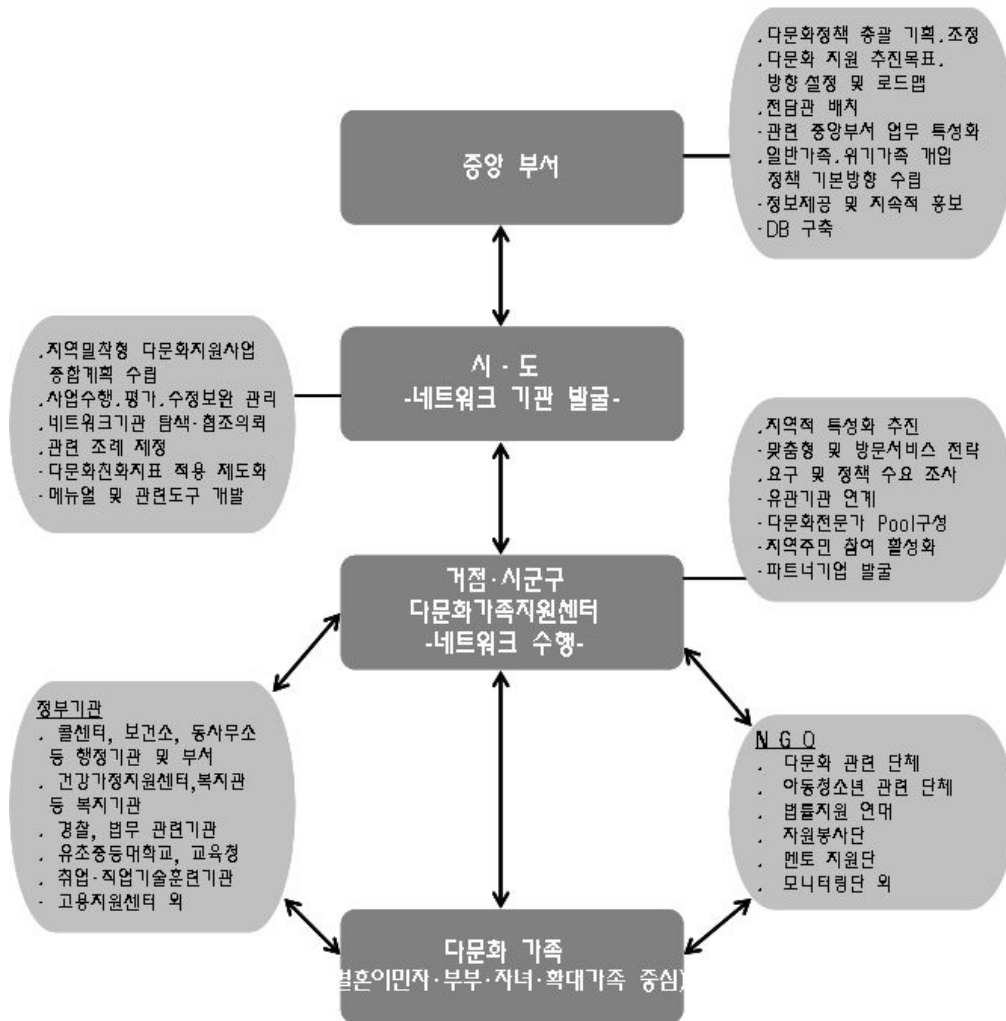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이 되는 서비스 전담체계 구축 배경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서, 희망복지 129의 네트워크 기관으로 위치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서비스의 추상성을 해결하고 접근 시각의 확장 및 다양성이 요구되므로,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와 전달자(다문화활동가)에 대한 인식과 시공간적 차이 등에 기초하여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자발적인 기능의 확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담체계의 조직적인 확대를 통하여 변화된 요구에 조력하므로써 통합적으로 의도된 학습활동을 위한 기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을 위한 구축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과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담체계 구축의 방향은 우선 거시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효율적인 이행 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특히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촉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에 기반한 거버넌스적 관리기능을 갖도록 하며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로서 지역 중심의 자원개발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글로벌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모델



\* 관련 도구 개발 : 아버지수첩, 아동발달진단도구, 통번역시스템 등

<그림 2>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틀(案)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기관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리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므로서 효율성이 감소하고 낭비되는 성공과 실패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관과 지원내용 등을 중심으로 합의적 질적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을 위한 기본틀을 정리해보면(<그림 2> 참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교류 및 평등한 위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부서별·지역별의 잠재적 환경을 포함하는 특성화가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별 및 네트워크 기관 상호간 역할모색이나 균형적 구조를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 네트워크 중심

#### (1) 네트워크의 배경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의 구조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는 교환, 상호관계, 공통의 이해, 공유된 신념과 전문적 시각을 통한 유대와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든 연계를포함한다(강일규 외, 2007).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수평적·협동적·유대적·주도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격차 심화를 해소하도록 하며 이와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지역밀착 접근을 선도하며 동시에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인적·물적 자본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유인과 가치를 내재하는 협동적인 자산 증진을 위한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및 관련된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의 자기주도적인 다문화시민교육을 촉진하게 되며 다문화감성 내지 다문화역량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므로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주민으로부터, 주민에게의 환류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 관련된 홍보 역시 강화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안으로는 평등적이며 상호방향적인 정책 공유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교류를 위한 구조화된 체계가 형성되므로서 연계기관 및 후원기관(기업, 개인, 행정지원, 홍보매체) 발굴 및 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될 것이다. 이 때에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수 연계기관을 선정하고 홍보하므로서 다문화가족지원 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영역별 지원을 특화하는데 예를들면, 하드웨어 측면으로 제정, 전문 인적자원, 정보교류, 홍보의 지속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교육과 연수 지원, 공동사업 등이 있으며, 대상자 측면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한 경험기회 제공, 심리적 안정감 지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성화 내지 전문화가 이루어지므로서 한국적 다문화가족지원의 브랜드 지위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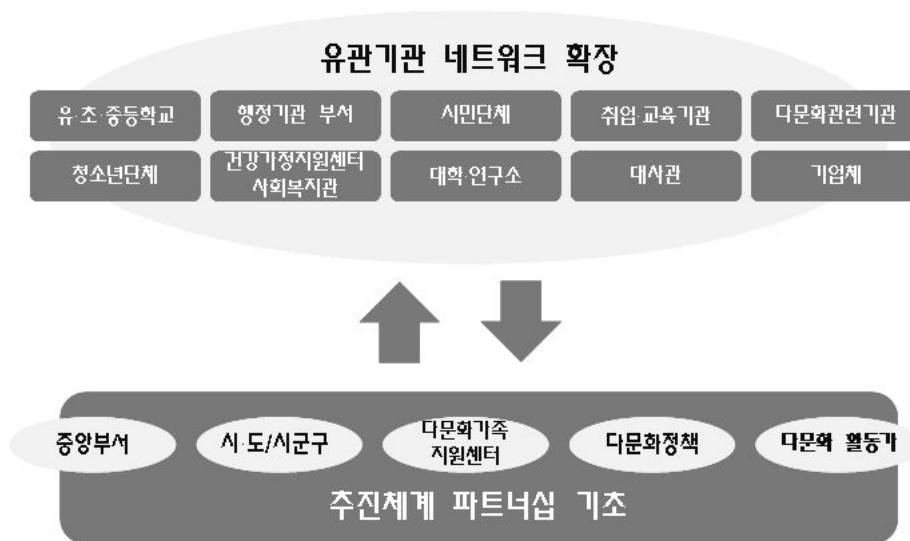
#### (2) 네트워크의 구성

네트워크 구성에서 주요구성체계로는 개인차원(결혼이민자)·관계차원(유관기관)·전체차원(사회·국가)이 해당되며, 네트워크 구성기관 및 방향에 있어서는 ① 구성기관 발굴 및 연계로서, 먼저 국내 중심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 NGO 및 시민단체, 유초중등 교육기관 및 교육청,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및 노동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 다학제적·다전문적인 모든 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네트워크 기관 발굴 역시 가능한 것이다. ② 네트워크의 방향으로, 영역별 및 통합적 차원의 지역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공부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정부 산하기관이 해당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부문으로 NGO, 시민사회가 있고, 연구개발부문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활용 및 효율성부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이 있으며 기타 지역적 특성 부문으로서 이외의 다양한 전문기관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3)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의 네트워크 체계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을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지원내용을 정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의

주요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기관 네트워크와 추진기관의 파트너십을 예시해 볼 수 있다. 추진체계의 파트너십 관계에서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주어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파트너십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기관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각 기관의 역할을 전문성과 주요기능 중심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성장, 인력과 기술의 활용, 대응정책 마련, 영역별의 적법성을 점검하여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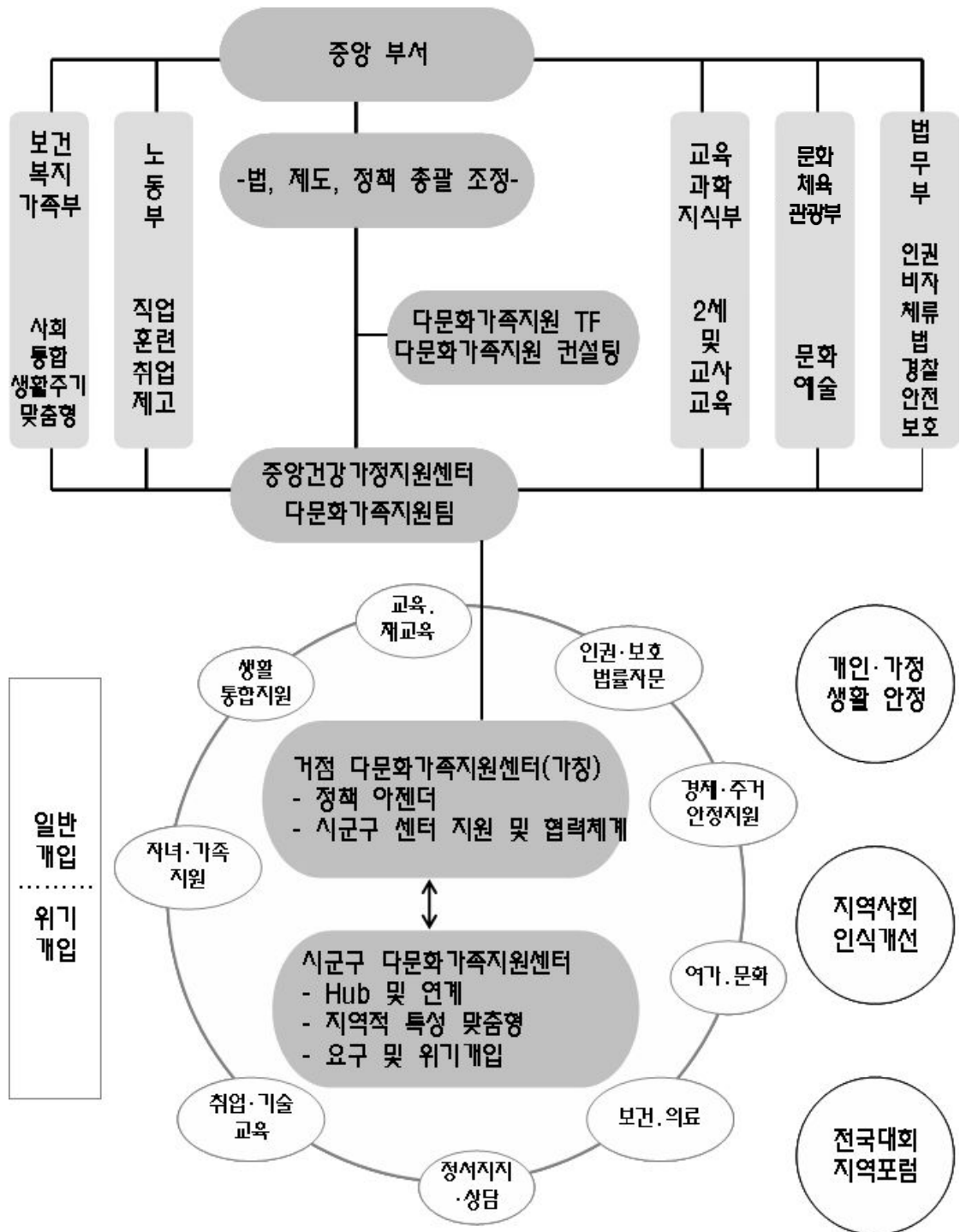
<그림 3>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체계(案)

#### 4)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모델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은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체계구축으로서 기능 연계와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에서 연계되는 각 기관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그림 5>는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모델로서 지원내용 및 연계기관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표출된 욕구와 잠재적 욕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이것의 강점과 약점을 재분석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가족생활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접근

<그림 4>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네트워크 구축(案)-지원내용 중심



### 3. 다문화 전문활동가

#### 1)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특성

다문화 전문활동가는 최근의 다문화사회 도래를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사회 변천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의 특성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표 2>에서 보듯이 다양한 변화속에 최근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할 수 있다.

<표 2> 사회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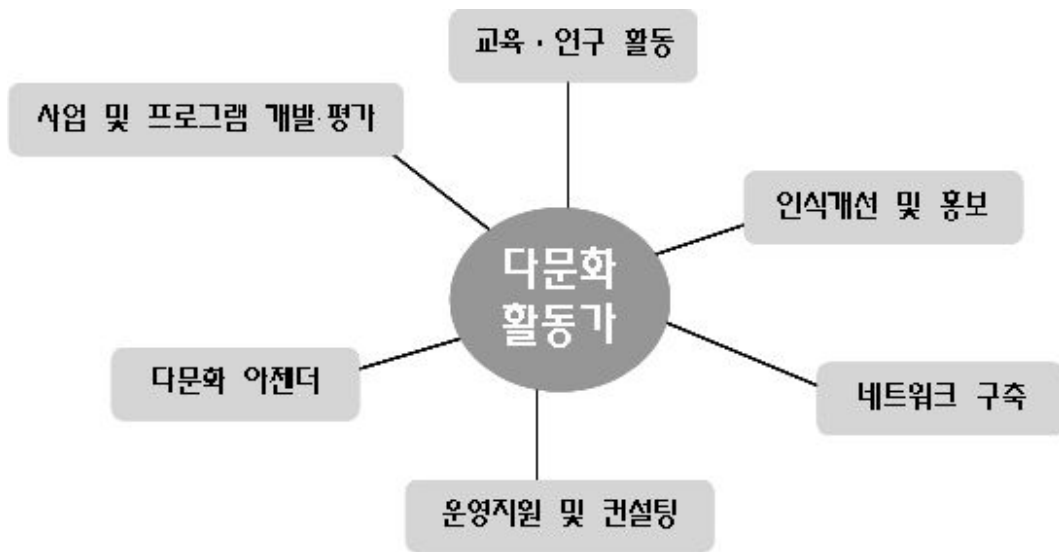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감성사회	+다문화사회
기능	추출	제조	배달	연출	
성격	대용적	유형적	무형적	감성적	
속성	자연적	표준화	고객화	개인화	
판매자	상인	제조자	제공자	연출자	
구매자	시장	사용자	고객	손님	

출처 : 강병서(2007)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된 활동가는 다문화사회 발전의 핵심으로서 다양한 역량이 준비될수록 높은 단계의 다문화적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특성으로는 자신의 전문적 정체성 인식 및 지향점(오혜경, 2005)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인권주의 지향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생산적 삶과 적합한 방향을 안내할 수 있으며 ② 사회정의 지향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적 관용주의 지향으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실천적 서비스와의 관계를 지향하며 ④ 임상 지향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은 윤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의사결정이 기초가 되도록 한다. ⑤ 초도덕적 지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의 대상자 입장에서 대상자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정의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⑥ 통합적 활동 지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은 개인·가족·사회 및 전체 차원이 다루어지는 다문화역량의 준비가 상호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활동가의 가치와 자세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가치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가치, 휴먼서비스의 실천 가치, 다문화사회 통합 가치, 조직적·제도적인 가치 그리고 전문적인 가치가 내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의 효과성과 효능성 측면에서의 주요영향요인이 되는 다문화 전문활동가는 인적자본 내지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일반적이면서도 특수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문화가족지원의 대부분이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가족생활교육자의 자질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정현숙, 2007) 성숙, 문화적 가치측면에서의 자아인식, 지적 능력, 심리 정서적 안정성, 공감능력, 사회적 기술, 자신감, 유연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문어적·구어적 의사소통능력, 모든 연령·개인·집단 등의 어울림이 가능한 통합능력, 그리고 문화적 관점과 독특성에 기초한 다중문화능력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추진기반을 통하여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을 수행하는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목표로는 첫째, 전문가로서 윤리적인 책임 둘째, 전문가로서의 약속과 헌신 셋째, 민감성에 기초한 관심과 배려 넷째,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실천 그리고 다문화서비스 맵의 제작 등이 해당되며 <그림 6>과 같이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주요업무수행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의 가치창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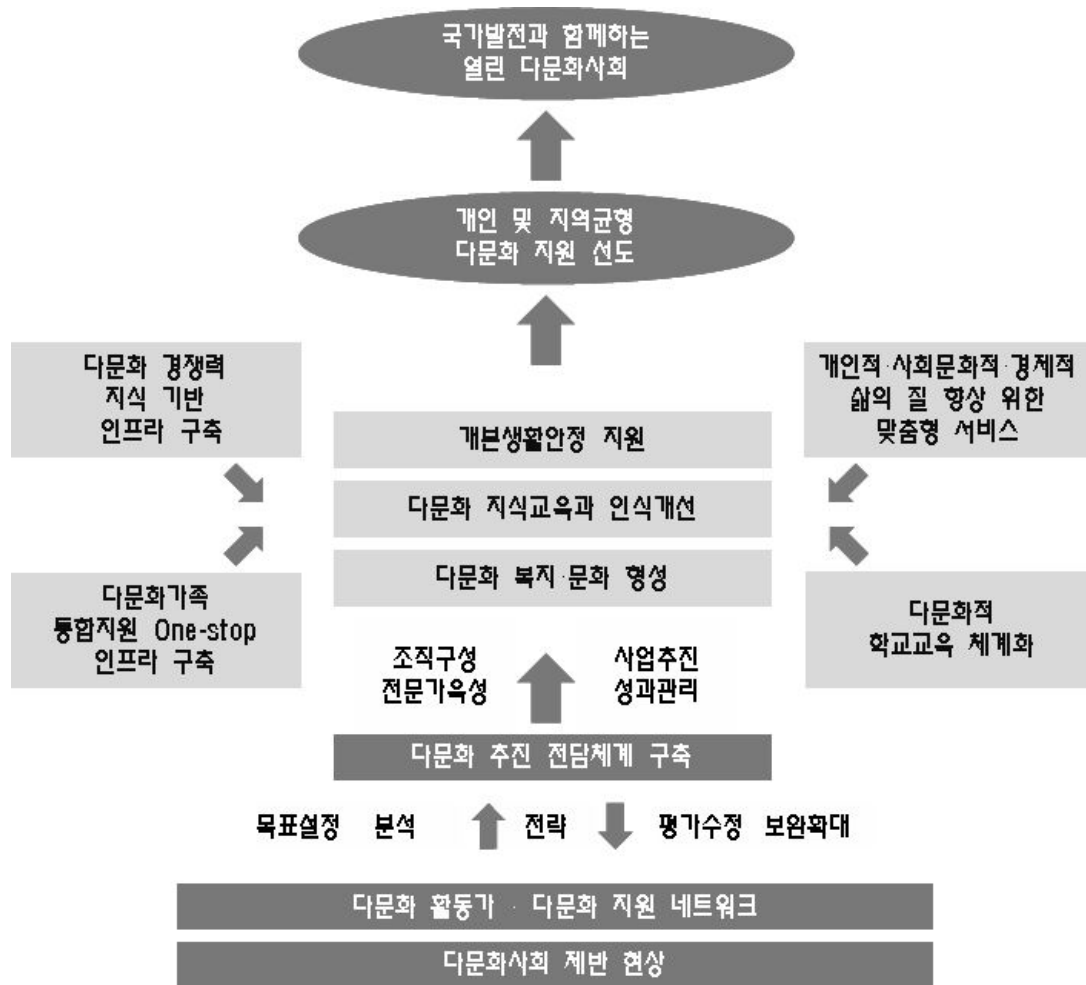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주요업무 체계

## 2)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과 다문화 전문활동가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과 다문화 전문활동가는 밀접한 관계로서 첫째, 배경적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전문활동가는 선도적인 휴먼서비스 리더십으로 수요자 또는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단계별 복합적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로의 재정 투입으로 효과 및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핵심 영역의 집중이나 단계별 중요순위를 선별하므로써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의 구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전문활동가는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에 기초하여 목표지향적인 휴먼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며 경쟁력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관련 법·제도와 정책수립의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므로써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문화 전문성 향상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문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그림 7>은 전체적인 다문화 전문활동가 시스템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7>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을 통해 본 다문화 전문활동가

###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지원 실태, 다문화가족지원의 현상적 측면, 관련 연구 등에 기초하여 모델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주요업무체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역량강화 측면

##### 1)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의 양방향적 교류 통한 다문화역량 강화 시도

다문화역량 강화는 21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새로운 자원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화적 역량은

다학제적 접근으로 모든 전문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연계하여 문화적 역동성 등의 다문화역량강화에 대한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과 일반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교류적인 다문화역량의 강화가 기본이 될 수 있다.

## 2) 다문화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적이며 제도적인 장치 필요

관련연구(김이선 외, 2007)를 통하여 이주민의 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태도는 심각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관용적인 반면 생활차원의 대면상황에서는 또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므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지원내용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이나 홍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개방적이며 다문화사회의 수용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상생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정집단으로서의 지원이 낙인효과나 주변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김순혜 외, 2009)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인식 제고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공교육제도에서의 교육과정 마련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이 강조된 다문화관련 교육의 모색이 필요한데, 특히 가치중립적인 견지를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이며 평등한 사회적 통합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영역이다. 학교 및 학급의 운영,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일반시민의 연계 등이 고려되어 학교급간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반면,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일부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목표와 방하여 전환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들어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다문화간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사회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언어와 생활이 일상화된 경우이다. 또한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다문화관련 교육은 매우 복잡적이거나 단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 측면

### 1) 단기·중기·장기적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의 선결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론적인 논의와 현실적인 정책대응 방안이 미흡할 뿐 아니라 중앙부처간 사전 협의없이 분절적 또는 중복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사례 중심의 여전한 온정적 시혜성, 정책보다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편향(김혜순 외, 2009)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탈피하여 본질적인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2007년 유엔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에서 나타났듯이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차별 철폐 및 인권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것이 반영된 정책수립이 우선적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을 전제한 정책이나 제도가 생활통합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위기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의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확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형성과 관심이 부상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은 적용에 대하여 보다 친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있다. 다문화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제반의 주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문화, 정치경제, 의료와 복지 등의 영역 및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시기이다.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수립된 정책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과 함께 다문화 아젠더 제안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다문화친화지수 및 파트너 기업 발굴,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멘토링 및 홈페이지 운영, 나아가 해외 네트워크 교류기관 발굴 및 연계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가 새로운 지형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이제까지처럼 유사한 업무담당자나 유사 전공자, 또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다 즉흥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또는 전담자가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다.

## 3) 수범사례 발굴 및 한국적 다문화특성화 기여 필요

다문화사회의 선행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의 결과물을 재생산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보다는 유사성이나 차별성에 유의하여 한국적인 다문화사회 환경의 현실에 적합할 수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형성 및 이주가 전지구적인 현상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적실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3. 다문화 전문활동가 측면

### 1) 다문화 아젠더 제안

다문화정책 수립은 중앙부처에서 관리기능은 가질 수 있겠으나 현재의 다문화가족은 교육과 문화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생존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한 다른 측면의 존재이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 즉, 체류자격, 노동의 권리,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김혜순 외, 2009)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상생활 국면과 생활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정책적 접근보다 현장에 있는 다문화 전문활동가의 주요한 역할로서 대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현장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의 로드맵 구축 등으로 복합적이며 실용적인 아젠더를 제안하고 정리할 수 있다.

### 2) 활동가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공식 교육체계시스템 운영의 정례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등의 관련된 활동은 그동안 유입된 국내의 소수집단의 다양성에 집중하여 동화적이며 온정적인 초기수준의 지원이 대부분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유지나 다문화가족의 증가현상이 언제까지일지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부터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응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다문화 관련 현장의 활동가 역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열정의 정도에 좌우되기 쉬운 지원형태는 다문화관련한 문제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형성에 대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맥락,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 3) 사회적 일거리 창출 기여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다면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 문화적, 정책 제도와 법, 정치 경제적, 교육 복지적 측면 등이 다양성과 관련하여 개인·관계·전체 차원에 접근할 수 있고 이외의 다수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의 전문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었는데 국제결혼이민관,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다문화 보육교사, 다문화 상담전문가, 다문화 청소년전담동반자, 다문화 프렌즈 등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직업의 요구 역시 다양한 전망이 예견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논의된 사항 이전단계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특히 다문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개념적 혼란을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 명확한 다문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 대상의 공식적인 지원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분배나 지속적 지원 등과 관련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원내용 차원에서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역시 기본단계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존 지원 및 앞으로의 정책적 비전을 예측해 볼 때 관-민-학-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접근이 된다.

본 연구는 방안제시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문헌 및 현장사례중심의 접근을 하였으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양적 분석을 병행하므로써 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초점이 다문화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 것과 방안제시로서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의 조건에서 필요할 수 있는 가능한 구성요소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접근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를 탐색한 초기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다문화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므로써 정책, 현장, 대상자 및 전문가 등의 시계열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총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장병서(2006). 학생지원처의 고객만족 워크샷 자료집. 경희대학교 미간행물.
- 장일규·이남철·이의규·윤여인(2007).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기홍(2006). 지역네트워크킹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연희(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숙(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안). 미간행물.
- 엄한진(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51(2), 112-140.
- 오혜경(2005).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서울:북카페.
- 윤홍식(2007).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회투자전략 :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자료집, 343-347.
- 이동희(2006). 역량모델링을 통한 직무역량개발에 관한 연구-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역량모델링과 활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길 · 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5), 58-83.
- 이환범 · 이수창(2008). 기초자치단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완-조직문화 유형별 조직 성과평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20(1), 131-153
-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서울:신정.
-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2008년 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 청소년위원회(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 김혜순 · 김재경 · 엄한진 · 최색별(2008).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한국사회학회.
- Doman Lum(2008). The Case for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in Korea.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Professionals in Multicultural Society.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74.
- Michael Reisch(2007). Construction a Socially Just System of Social Welfare in a Multicultural Society:The U.S. Experience.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47-191.



##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방안 : 네트워크 및 활동가 중심으로

진 미 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 새로운 사회적 도전이면서 위협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 수준도 높아졌다. 시민사회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 역시 주목할 만 하며, 효과성 여부를 떠나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 역시 뚜렷하다. 다문화정책이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가 아니라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문화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한 본 글은 먼저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네트워크와 전문 활동가 중심으로 검토한 점에서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본 고와 의견을 달리하는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한다. 물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이 역량강화의 일차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다문화현상을 고려할 때 다문화역량강화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즉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고에서도 서비스기관의 문화적 역량이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민감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다문화가족으로 회귀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역량이나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문화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없는지 등등이 검토되고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보편적 가족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재의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다문화가족지원정책만을 별개로 놓고 본다면, 이러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부언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보편적 가족정책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별개의

네트워크 추진기반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가족정책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되는지에 따라 추진기반의 필요성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활동가의 역할 역시 일반적인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거나 전문화될 수 있는지 혹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림6]에 나와 있는 다문화활동가의 주요 업무는 교육·연구 활동, 인식개선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 및 컨설팅, 다문화 어젠더 세팅,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 등인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활동가나 건강가정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사들의 다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적 민감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분 동의하지만 다문화활동 전문가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좀 더 차별화되는 업무나 영역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을 넘어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모색과 가족정책과 통합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역량강화와 통합적인 가족정책이라는 목표 안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